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84)(8/16/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49 장 영생을 사모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약속된 지극히 큰 상을 바라봄, 2 절

창 12:1 -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신 6:4-5 -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위를 사랑하라.

마 6:24 -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

2. 아들이, 불이 타올라서 불길이 위로 올라갈 때에는, 흔히 연기가 생겨나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것들을 향하여 사람들의 열망이 타오를 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시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기도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순전히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너는 네가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가 진실하고 순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너의 기도 속에 섞여 있다면, 너의 기도는 순전하고 온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씀과 해설:**

우리의 삶의 여정은 선택의 연속이다. 성경에는 이 사실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창 12:1)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다. 롯이 작은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결별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창 13:9)고 말하면서 선택의 기회를 주었다. 그 때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길 것을 선택하였다. 신약에서도 수많은 선택의 모습이 나온다. 예수님을 열심으로 돕고 섬기던 가정에서 자라난 마가는 마침내 사도바울의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 험난한 선교 사역의 여정을 함께 했는데, 그들이 1 차 선교 여행 중 버가에 이르렀을 때 마가는 팀원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아마도 너무나 힘든 여행과 사역을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마가는 계속 사역 팀에 머물며 고생을 무릅쓰고 선교 사역을 완수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하고 돌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행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고 말았다.

우리도 매순간 계속해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한다. 선택은 우리의 일상의 작은 일들에서부터 나의 직업에 관련된 일에 있어서도 늘 반복된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성의 삶을 사는 우리는 언제나 신앙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한다. 신 6:4-5 -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위를 사랑하라.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고 하셨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혹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한다(출 20:3-6). 호 1:2 에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음란과 간음에 비유했다. 만약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란, (1)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최고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보내심을 받은 가나안 땅에서 가는 곳 마다 예배했다(창 12:6-9).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며 테스트하셨는데(창 22 장), 이것은 예배를 통하여 그의 믿음의 중심을 보기 원하셨음을 알게 한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제사 제물의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신 것도, 예배에 담긴 의미를 깨닫게 한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섬김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삶에 최선을 다한다.

(2)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신 13:4 -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에 시작된 초기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핍박을 받기 시작했는데, 행 5 장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었고, 천사가 투옥된 그들을 탈출시키면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한 사건이 나온다. 사도들은 천사의 말대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 체포되어 공회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 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행 5:29)**고 말했다. 이것은 그들이 이 세상이나 사람들, 부귀와 영화, 안락한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비록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선택했음을 보여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3)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성도로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넘어 좀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어서 **“내 양을 치라”**고 하셨다(요 21 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은 ‘네가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선택하느냐’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내 양을 먹임으로 나의 일을 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은 쉽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행 20:23-24 - 23.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요일 4:19 -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엡 1:4 -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의 은혜를 먼저 입은 우리는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일을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신앙의 여정은 선택의 연속이다.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오늘도 순간순간 주님을 온전히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질병의 고통,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 일 등, 다양한 삶의 고난 속에 힘들어 하는 교우들을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해결의 은총을 주옵소서.
3. 미국에 세워 주신 한인 교회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참되고 성숙한 교회들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